

## 마르크스주의 정치생태학의 정립 최병두의 정치생태학에 대한 논평

Establishing Marxist Political Ecology:  
Commentary on Political Ecology of Byungdoo Choi

이상헌\*

### 1. 서론

이 논평은 최병두의 정치생태학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이다. 정치생태학과 관련해 최병두가 이론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크케는 인간(사회)-자연의 이분법에 기초한 다양한 부르주아 환경론 혹은 환경이데올로기들이 실제로는 자본주의를 오래 연장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회와 자연 모두 질곡에 빠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변증법에 기초하면서 생산적 정의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자연의 관계, 즉 기존 사회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회-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 한신대학교 교수(ttochi65@hs.ac.kr)

## 2. 연구의 주요 주제들

### 1)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정립

최병두가 정리하는 정치생태학은 “생태자원을 둘러싼 어떠한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배 갈등이 다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는 학문이다(최병두, 2001: 131). 최병두는 생태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연결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진보적 정치경제학이 갖는 생태학적 한계와 무지에 대한 비판들(권혁범, 2000)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생태학 정립에 필요한 작업을 전개했다. 즉, 첫째, 마르크스가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만 인식하는 인간중심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생태적 사고가 부족했다고 반(反)생태적인 것은 아니며, “계급 착취와 생태계 착취는 내적으로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계급 착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생태계 착취를 극복하도록 해주며,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고 답변했다(최병두, 2001: 136). 둘째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기술 중심주의, 생산성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술을 통한 자연의 지배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의 합목적적이고 규범적인 지배”를 의미하고, 사회주의에서는 물질적 경제 자체는 궁극적으로 저하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응대했다(최병두, 2001: 139). 셋째로, 마르크스주의는 환경문제의 보편성을 무시한 계급환원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의 보편성이 계급성을 배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취약한 집단과 계급, 지역에 전가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생태학을 정립하고자 했다(최병두, 2001: 140).

## 2) 생산적 정의

최병두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환경정의론을 체계화하는데도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의하다고 본 것은 명백하지만, 이를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인간 본성, 즉 사회적 노동을 통해 자연과 매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 본성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하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부정의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가용하게 주어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 인간 개인들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 사회-환경은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사회-환경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그들의 물리적·정신적 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자아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 사회-환경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10: 252). 하지만, 마르크스는 권리, 정의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 및 이것이 결정하는 문화적 발전보다 결코 더 높을 수 없다고 보았다(최병두, 2010: 253).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병두는 마르크스주의적 환경정의론의 본질은 분배 정의보다는 생산적 정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마르크스는 임금, 물질적 자원 등의 분배를 위해 평등이나 형평에 호소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임금균등화보다는 임금 체계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분배는 생산이 먼저 변경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최병두, 2010: 266).

최병두가 해석한 사회주의적 정의는 “노동이 생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우선적 욕망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노동 원칙,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필요와 전반적인 자아 발전이 생산력의 증대로 충족된다는 의미에서의 필요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화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 분업의 폐지에 의해 인간 개인들의 물질적 관계와 그들의 자연과의 관계를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고, 또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간 대립의 폐지를 통해 노동력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가치화하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 또한 생산 수단의 공유적 소유를 통해 인간 개인들이 타자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교환 없이 직접적 전유를 통해 개인들의 필요는 그들의 노동의 성과에 의해 직접 만족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에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통해 인간 개인은 그들의 노동을 통제하고 그들 노동의 조건을 창출한다”(최병두, 2010: 277). 결국 생산적 정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질적으로 고양된 사회주의의 ‘정의로운’ 생산을 통해 매개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자연의 생산과 축전전략으로서 환경적 조정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환경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자본을 축적하고 위기를 돌파해내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최병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기술에 의한 자연의 지배라는 마르크스의 테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다루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다양한 논자들이 마르크스의 이 테제를 두고 인간중심적이라든지, 기술결정론이라는 식의 비판을 제기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병두는 이 문제에 대해 자연의 지배 혹은 통제에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최병두, 2013: 78).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논지를 수용하여 자연과의 관계에서 노동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생산 일반’, 그리고 특히 교환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해하고자 했다(최병두, 2010: 267).

그러나 최병두는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이 이론적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생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자연의 소유 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는 점, 셋째, 자본주의 발전 과정

에 합의된 사회-자연 관계의 복잡성과 다중성, 다면성을 고려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 등이다(최병두, 2009: 35~36). 물론 닐 스미스는 이후에 ‘자본축적전략으로서 자연’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구체적으로 자연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이라는 구분도 제시한 바가 있다(스미스, 2007). 축적 전략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논제는 자본의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 이해된다. 최병두는 이 논지를 더 발전시킨 노엘 카스트리의 환경적 조정 개념을 적극 차용한다. 환경적 조정은 “자본이 이윤을 하락 경향에 직면하여 축적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포섭을 확대시키거나 재조직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최병두, 2009: 49). 그리고 환경적 조정은 크게 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한 조정 전략, 환경에 무차별적인 조정 전략,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조정 전략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형식적 포섭(상업화), 실질적 포섭(산업화), 의제적 포섭(금융화)과 결합됨으로써, 총 아홉 가지의 축적 전략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하게 된다(최병두, 2009: 49~51).

### 3. 의의와 한계들

마르크스주의 정치생태학을 수립하고자 했던 최병두의 학문적 업적은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우선, 자연과 사회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자연(socio-nature)이 노동을 매개로하여 생산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최병두, 2013: 77),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환경문제’ 혹은 ‘환경위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규범의 윤리적 토대를 생산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진보적인 환경정의론, 진보적인 생태정치학의 이론적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이른바 적색과 녹색의 동맹에 대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녹색정치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독일 녹색당의 경우,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된 역사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적색과 녹색의 이론적 연대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태주의자들이 녹색당을 떠나고 기회주의자들이 녹색당을 차지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사랄사르카르, 2018). 물론 이러한 관측이 편견일 수도 있지만, 탈성장에 대한 생태주의적 요구와 탈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진보진영의 요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데, 최병두의 논의는 향후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최병두의 논의에도 한계로 보이는 지점이 있다. 생산적 정의가 매우 근본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정의로운 관계 혹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한 채로 남아있으며, 어떻게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물론 “자연과 인간의 상호교환의 합리적 조정은 ‘에너지의 최소한의 지출 그리고 인간 본성에 가장 우호적이고 가치 있는 조건들’하에서 실현될 수 있다”(최병두, 2010: 282)고 하지만, 과연 인간 본성에 가장 우호적이고 가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노동력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가치화’하고 ‘재회복’해야 한다고만 주장될 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기도 어렵다. 아마도 최병두는 사회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에너지의 사용 방식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마르크스에게 에너지의 최소 지출을 달성할 가능성은 개인의 노동이 인간 필요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사용가치를 구현할 때만, 즉, 공동 생산이 생산의 출발점으로서 교환가치를 제거할 때만 의미해진다”(최병두, 2010: 283). 이러한 주장의 의의가 큰 것은 이해가 된다. 이 경우 생태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아마도 이는 최병두의 마르크스주의 정치생태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후학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 참고문헌

- 권혁범. 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 사탈 사르카르. 2018. 「독일 녹색당, 과연 희망의 등대인가」. 《녹색평론》, 통권 제 163호, 57~69쪽.
- 스미스, N. 2007.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 허남혁 외 옮김.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
- 최병두. 2001. 「생태정치와 정치생태학, 그리고 맑스주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1.9, 124~145쪽.
- \_\_\_\_\_. 2009.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6(1), 10~56쪽.
- \_\_\_\_\_. 2010. 『비관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 \_\_\_\_\_. 2013. 「대구의 도시 발달과 물의 사회적 순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75~96쪽.